

2019-제7호 카드뉴스
쉽게 읽는 인권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화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X 연세인권앰배서더

★★★★☆ 6.35 31,007명

〈 네이버 평점 〉

★★★★☆

6.6 5,741명 >

〈 다음 평점 〉

← 댓글



_jungyumi 숙소에서 만난 낮잠자는 여우
#마이리얼트립

1일

명청한 거른다 이제 ㅋㅋㅋ

3시간 좋아요 11개 답글 달기

— 답글 보기(79개)

82kg 김지영 캐스팅
ㅋㅋㅋㅋㅋㅋ 한심하네요 앞으로 믿고
거르겠습니다 수고하십쇼

2시간 좋아요 10개 답글 달기

— 답글 보기(13개)

어우 시전하던 태새
전환 개빠르네

4분 답글 달기

진짜 실망이네요. 이제 님의 작품은 보이콧 하겠
습니다.

7분 좋아요 1개 답글 달기

정유미씨 실망입니다. 어떻게 부페
니즘의 대표작에 출연하시나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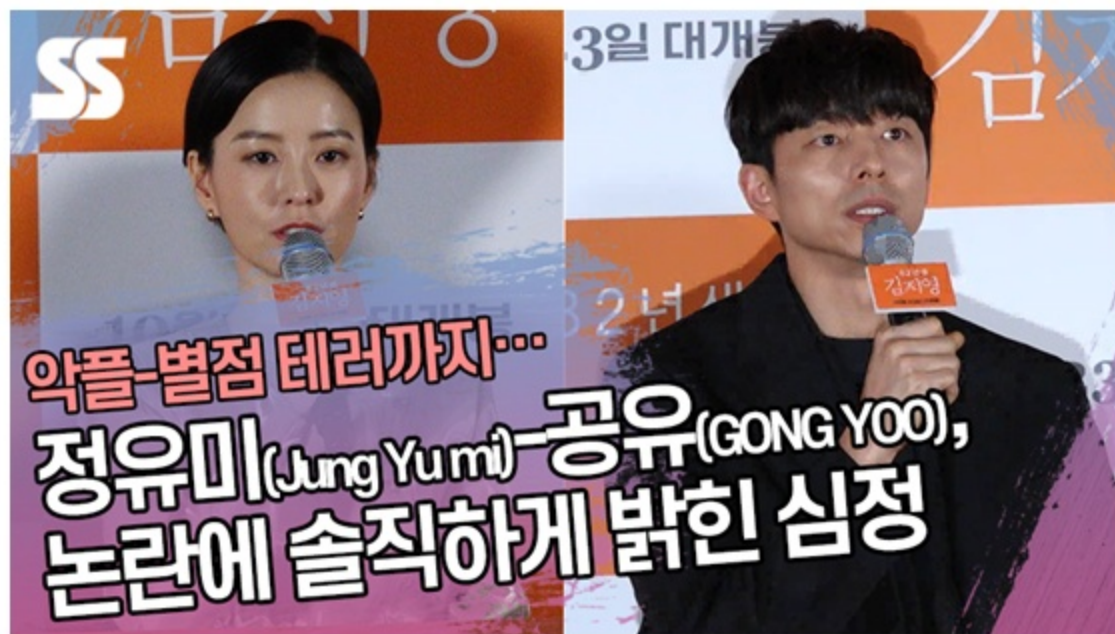
8분 좋아요 1개 답글 달기

〈 정유미 씨 인스타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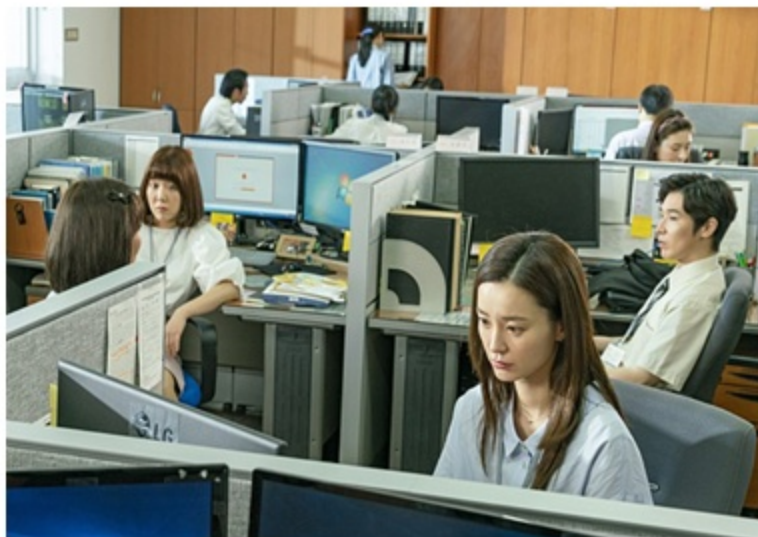
영화는 개봉을 하기도 전에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인공 김지영 역을 맡은 정유미 씨와 그 남편 정대현 역을 맡은 공유 씨의 개인 SNS에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 영화에 최저 평점을 매기는 소위 '평점 테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2016년 출간된 조남주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해당 소설은 누적판매 100만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이며, 1982년에 태어나 지극히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김지영’의 삶을 그려냅니다.



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다, 82년생이 아니라 할머니 세대가 겪은 이야기라면 공감이 되겠다, 이 사회에서 여성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닌데 마치 여성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렸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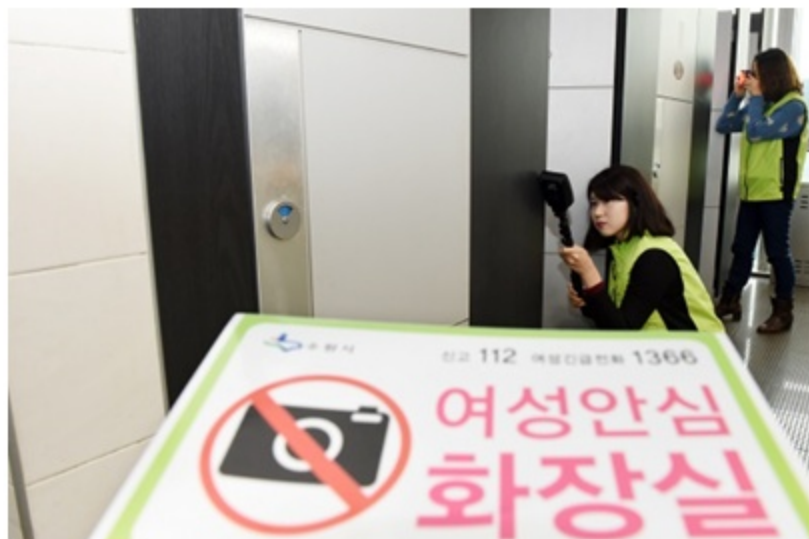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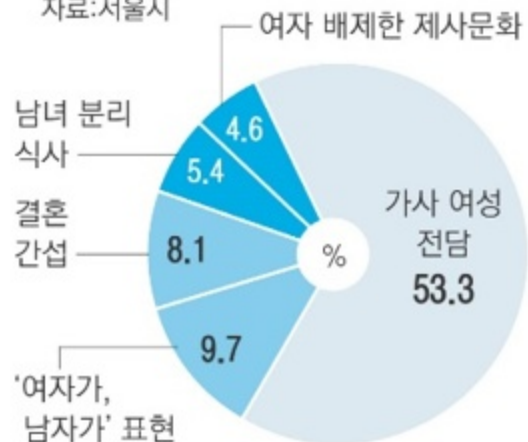


하지만 영화 평론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실제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로 불리기엔 너무 담담하며, 성갈등을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주인공 '김지영'은 임신 및 육아로 경력에 단절되는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합니다. 남성과 똑같이 교육받았고 남성과 똑같이 일했었지만, 임신 및 육아 이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김지영'의 모습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명절 때 겪는 성차별 2018'

※남녀 1170명 조사, 남녀 포함 복수응답

자료:서울시



이외에도 명절이면 시댁에서 여성이 음식 만들기부터 설거지까지 도맡아해야 하는 장면, 남성사원 단톡방에서 야한 사진을 돌려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장면, 여자화장실에 설치되어있던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장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커피 한 잔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육아를 하다가 잠깐 커피 한 잔 하는 건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 모두 현실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충을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영화는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막는 회사 분위기,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남성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도 그리고 있습니다. 김지영의 남편 '정대현'이 김지영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지만, 직장 동료들이 "그러다 책상이 사라질 수 있다"며 만류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96%

27,973명의

CGV실관람객이 평가해주셨습니다.

〈 cgv 골든에그 〉

관람평점 ★★★★★ 9.2

〈 롯데시네마 평점 〉

관람객 ★★★★★ 9.52 (821)

〈 네이버 평점 〉

흥행 예매율 1위 | 누적관객 ? 1,262,899명

〈 10.28 기준 관객 수 〉

영화는 개봉 이후 실관람객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연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감되는 내용이었다, 모두가 한번쯤 봤으면 한다, 남성은 육아 및 가사를 돕는다는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영화는 현재 10월 28일 기준 개봉 6일 차에 120만 관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이 일본, 대만, 중국에서 흥행한 데 이어, 영화도 호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37개국에 선판매되었습니다. 특히 소설은 일본에서 출간된 지 사흘 만에 완판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대만과 중국에서도 출간된 뒤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소설 및 영화를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82년생 김지영」, 누군가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2019-제7호 카드뉴스
쉽게 읽는 인권 이야기